

전북 ‘숙의민주주의’ 시동...도민 참여 강화

국주영은 의원, 조례 발의 예고
공론화위원회·참여단 등 제도와
“도민이 도정 진짜 주인 되어야
사회적 갈등↓정책 수용성↑”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하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산업, 문화관광, 수소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전북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12) 의원이 도민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의



국주영은 도의원

현 및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전국적으로 이목을 받고 있다.

국 주 영 은 의원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만으로 는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온전히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도민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 이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학습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토

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을 제도화하고, 이를 도정 전반에 확산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이 주목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숙의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도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숙의 과정을 관리할 공론화위원회 설치 ▲도민참여단, 공론조사, 도민원탁회의 등 다양한 숙의공론화 과정 도입 ▲숙의 결과의 적극 반영 ▲도민들의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주영은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결국 도민들의 참여와 지지에 달려 있다”며 “이번 조례는 도민이 도정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장치이자,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개발사업, 환경문제, 복지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만금 개발이나 특례산업 육성과 같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 정책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 조례가 단순히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닌 도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과정 및 제정 후에도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가장 강력한 민생 도지사 될 것”

13일 기자회견 열고 출마 공식화
“이재명·정청래와 3각판대 구축”
피지컬AI·K컬처 성장 동력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 김제 부안) 의원이 2026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13일 공식 선언했다.

재선인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3각판대를 구축,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들겠다”며 “강력한 민생 도지사, 발전전략을 통한 가장 강력한 경제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은 독재정권으로부터 산업화에서 철저히 소외됐고 수도권 집중에



이원택 의원

전북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방정부부터 청와대, 기초의원부터 국회의원, 시·도·정·국정 등을 두루 거치며 모두 경험했다”며 “오직 도민을 위해 발로 뛰는 개혁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위원장 “정여립 대동정신으로 전북 미래 다시 세워야”

진안군민의날 행사서 비전 제시
“이재명과 전북 기본소득 실현
재생에너지·피지컬AI 등 총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63회 진안군민의 날 행사에서 “정여립의 대동정신이야말로 오늘의 전북이 다시 세워야 할 미래의 가치”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진안 죽도가 정여립 선생이 학문과 사상을 펼쳤던 상징적인 공간으로, 대동정신의 뿌리가 서린 곳이다. 정여립이 꿈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정신이며,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정신은 동학으로, 1980년 광주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웠다”며 “광주가 현대사의 민주성지라면 전북은 조선의 민주성지다. 정여립과 동학의 정신이 이 땅에서 시작된 만큼 전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여립의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 이재명 정부와 제4가 뜻을 이어받아 전북에서 재생에너지



“조선 민주성지 전북, 동학정신으로 나아가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은 지난 12일 진안군민의 날 행사에서 “정여립의 대동정신이야말로 전북이 다시 세워야 할 가치”라며 전북 기본소득·기본사회 실현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안호영의원실>

(RE100)·피지컬AI·햇빛·바람·계통연금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대동사회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여립 선생은 조선 중기의 사상가

이자 개혁가로, 벼슬을 버리고 전북 완주·진안 일대에서 활동하며 제자들과 함께 대동사상을 펼쳤다. 그는 신분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주장한 조선의 대표적

혁명사상가로 평가받으며, 그 사상은 이후 동학운동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의 사상적 뿌리가 됐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올림픽 유치 준비 ‘사상누각’ 조국당, 정치적 동기 의혹 제기

전북도당 “정치카드 전략” 우려
“SOC 연계 전략 시대착오적” 지적
“준비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윤준병 의원의 문제 제기로 전북도의 올림픽 준비 실태가 충격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도민에게 희망이여야 할 국제대회 유치가 준비 부실로 얼룩지며 의혹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 처한 것이다”고 전제한 뒤 “김관영 도지사가 올림픽 유치를 선언했을 때부터 도민들의 합리적 의심은 존재했고 세계 잼버리 실패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도지사가, 잼버리보다 수백 배 규모인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림픽을 도민의 미래가 아니라, 정치적 만회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전북은 이번 대선에서 올림픽 유치를 1번 공약으로 내세우며 8개의 대형 SOC 사업을 연계시켰지만 이런 전략은 시대착오적이며 실패 가능성이 컸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올림픽을 제외하고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로

여기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조국당은 “올림픽 유치가 공공성보다 정치적 이해에서 출발했다는 의혹인데 올림픽 유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전라북도 체육회장은 체육 행정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임에도 대선 직후 500만 체육인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고 언론을 통해 스스로 밝혔다. 그가 전임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윤석열 후보 만들기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는 증언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도가 유치전에 뛰어들면 배경에 체육회 인사들과 김관영 도지사의 정치적 동기가 얹혀 있다면, 이는 올림픽이 전북의 발전 전략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에 기댄 위험한 결정이었다는 방증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첫째, 윤준병 의원이 제기한 자료를 포함해 정부와 전북도는 올림픽 준비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올림픽 추진이 특정인의 정치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면, 김관영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장정철 기자

2025

국제종자박람회

KOREA SEED EXPO 2025

2025. 10. 22. 수 - 10. 24. 금

민간육종연구단지·종자산업진흥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www.koreaseedexpo.com

도, 가을 영농철 앞두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독려

보험료 80% 정부·지자체 부담
농가 부담 2만원 상해·질병 보장
도, 지난해 보험금 14억 지급

전북도가 가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 보험은 보험료의 80%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농업인은 약 2만 원만 내면 농작업 중 사고와 질병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만 18세~87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며, 가입은 연중 내내 가능하다.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일반형·산재형 등 다양한 유형을 안내받고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상품 유형에 따라 10만~18만 원이지만, 정부가 50%, 도와 시·군이 30%를 각각 지원해 농가 부담은 2만 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는 농업인 10만6천여 명이 가입했으며, 4천7백여 건의 사고에 대해 총 14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는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사고 보상체계를 실질적으로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본격적으로 수확기가 도래하는 10월부터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영농철 도래 전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농업인 자신과 가족의 생활 안정까지 든든히 챙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 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봉사단체 '공명이사랑나눔회'가 최근 도내 초·중·고등학교 6명에게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전북선거위>

전북선거위, 도내 초중고학생에 장학금 전달

봉사단체 '공명이사랑나눔회'
6명 학생에 총 300만원 수여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공명이사랑나눔회'는 최근 초·중·고교생 6명에게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공명이사랑나눔회'는 전북선거위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2007년 결성된 이래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매년 연탄배달, 불우이웃 성금전달, 자매결연 복지시설 후원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미래 유망자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장학금 전달은 전북선거위 임병철 사무처장이 수여하였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진행해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전북선거위는 "공명이사랑나눔회를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활동을 지속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위해 270억 투입

4분기 중기육성자금 접수 시작
이달 13일부터 온라인 접수
창업·경영안정·벤처 등맞춤용자

전북도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4분기 중기기업육성자금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270억 원 규모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50억 원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벤처기업육성자금 20억 원이 배정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및 벤처기업 등이 포함된다. 기업당 융자 한도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시설자금 최대 15억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은 운전자금 최대 5억 원(우대기업 7억 원),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도에서 2~3.18%의 이차보전을 제공하며, 기업은 나머지 금리를 부담한다.

신청 기간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경영안정자금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https://jbok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

구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	150억원	100억원	20억원
지원대상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벤처기업
지원 내용	기업당 한도	시설 15억원 운전 5억원(우대 7억원)	시설-운전 10억원
	대출 금리	기업부담 : 2.82% 도 이차보전 : 2.18%	기업부담 : 기업별 상이 도044보전2~3% 기업부담 : 1.82% 도 이차보전 : 3.18%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사진=전북도>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2025.4.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내외의 경제여건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번 자금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이성윤 의원 "계절근로자 현장 문제 해결 시급"

올해 95,444명 21년비 13배 급증
"국정감사에서 대책 주문할 것"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5,444명으로 2021년 7,340명 대비 13배 급증했다. 이는 농어업 현장의 인력난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별로는 2025년 기준 전라남도가 20,718명으로 가장 많은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었고, 경상북도 14,886명, 충청남도 14,781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2025년 8월 기준 베트남이 33,938명으로 전체 3분의 1 이상 차지했다.



이성윤 의원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 전환 문제도 심각해 2021년 278명 수준이던 불법체류자는 2024년 1,295명으로 4.6배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671명이 추가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양적 확대에만 매몰되면 불법체류, 브로커 범죄, 인권 침해 같은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출입국관리법' 및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 관련, 정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의원 "농수산물 매년 50억 무역적자 정부는 농수산물식품 수출실적만 홍보"

"수출실적 홍보에만 매달려
농어민 피해 지원도 나서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50조원 규모의 농수산물 무역적자를 외면하고 농수산물식품 수출실적만 홍보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TV 인터뷰를 통해 '2030년까지 150억불을 우리 K-푸드로 수출을 하겠다'며 수출 실적 올리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물식품 무역적자가 매년 50조원을 넘고 있다"며 "수출실적이 아



윤준병 의원

닌 농수산물식품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매년 수출성과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해왔으며, 올해 초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해 농식품 105억불, 수산물식품 31.5억불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 7월에는 상반기 농식품수출이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며 'K-푸드 플러스' 실적을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인용한 KATI(농식

박희승 의원 "10년간 108개 의약품 공급중단"

美 관세 불안 등 불확실성 확대
원료의약품 자급화 등 대책 필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원료의약품 공급중단으로 연간 10개의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 108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됐다. 올해 상황이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8월 기준 6개의 의약품이 공급 중단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까지 심화되고 있다"며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원재료 의약품 수입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인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원료의약품 수입액 상



박희승 의원

위 10개국 분석 결과 2016년 중국의 원료의약품 수입액은 26.8%, 인도는 8.8%로 중국, 인도 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 비중이 35.6%였지만, 지난해에는 중국(36.3%), 인도(14.2%) 2개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5%로 대폭 높아졌다.

또 올해 4월 미국 상무부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료를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구조 탓에 정세 변화, 수출규제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 취약하고, 가격 측면에서 경쟁이 어렵다. 의약품도 안보라는 생각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자급화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 추진

병원에 진료코디네이터 수어통역사 배치

전북도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동된다. 이에 따른 관련 병원에는 진료코디네이터 2명, 수어통역사 1명이 상시 배치되어 장애인 편의에 도움을 준다. 더불어 예약 지원,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기

관 이용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 공모에 원광대학교병원(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 최종 선정된 데 이어, 9월 국비 교부가 확정됐다. 이번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공모에는 전국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사업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총 4억 5천만 원(국비 50%, 도비 50%)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원광대학교병원은 선정 직

후 병원 내 별도 공간을 조성해 장애인 전용 통합 상담창구 마련과 함께 청각·시각·발달장애인 위한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앞으로 전북도와 원광대학교병원은 지역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홍보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편의가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

터 운영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 확대 △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여왔다. 윤효선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성과에 따라 사업이 지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북도와 원광대병원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2025 K-라이스페스타’ 참가업체 모집

쌀 소비 촉진의 장 마련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오는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에 참여를 위해 도내 양조장과 쌀가공업체, 관내 농협 등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K-라이스페스타 행사는 오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동안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열린다.

특히 농협경제지주가 주최·주관하고 농협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 행사의 큰 주제는 농심천심(農心天心)의 가치를 담아,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쌀 소비 촉진의 장으로 마련된다. 모집 대상은 국산 쌀로 우리술·쌀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전시·판매와 바이어 상담, 소비쿠폰 프로모션, 공연 등이 함께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내 ‘부스참가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공고에 따른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다. 참가업체에게는 3m×3m 기본부스 사용료 전액 지원과 기본 집기(인포테이블, 의자, 전시테이블 등)가 제공되며, 현장 판촉을 위한 상생 소비쿠폰 제도가 운영된다.

이정환 전북농협 본부장은 “전북농협의 가치인 ‘농심천심(農心天心)’을 널리 알리고, 쌀 가공 산업의 질적 성장을 통해 농가소득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며 “전북의 우수 제품이 일상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행사 준비와 현장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2차 공공기관 이전유치 전략 제시

‘JJRI 이슈브리프 제10호’ 발간 전략과제 제시

전주시 정책연구기관인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 및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한 ‘JJRI 이슈브리프 제10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날 이슈브리프를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지역과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장년 인구 유입과 같은

인구조조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특히 △직접적인 인구 유입 △이전 한 시가지 조성 △기관 운영 과정에서의 활발한 경제활동 △연관 업체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과의 시너지 △지방세 유입 등의 중요 정책으로 손꼽았다. 연구원은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3대 주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지역 균형 차원의 형평성 및 연계 발전을 위한 효율성을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하고, 이전기관은 경영환경 및 임직 여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만큼 이러한 이해관계가 합치돼야 원활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전주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적 입지 제공을 위한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최적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 접근성과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으면서 기존 혁신도시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위치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비용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기존 혁신도시인 전북혁신도시와 거점도시인 전주시, 새만금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해 단순 공공기관이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관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산·학·연·관이 하나로 힘을 모아 지역에 적합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4개 영역·10대 전략 35개 세부과제 발굴 중장기 로드맵 제시

2026~2030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가 13일 개최됐다. 보고회는 송금현 환경산림국장, 전북도 환경교육위원회 위원, 시군 관계자, 전문가, 용역수행기관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용역을 수행한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전북의 환경교육 정책 비전으로 ‘환경교육을 통한 모두의 변화, 환경교육 선도도시 전북특별자치도’를



제시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 환경교육 기

조체계 구성, 도민의 환경교육 학습권 보장, 탄소중립 사회 실현, 교육 영역 간 협

력 기반 강화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영역별로는 10대 전략과 35개의 세부 실천과제가 제시됐으며, 단계적 실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함께 마련됐다. 도는 환경교육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추가 반영해 10월 20일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송금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민이 생활 속에서 환경교육 가치를 체감하고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교육 선도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골든타임을 지켜라”… 다중출동체계 훈련

구급현장 대응역량 높이 ‘골든타임 확보체계’ 구축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다중출동체계 특별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구급현장 협업 대응력과 실천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훈련은 심정지, 중증외상, 다수사상자 발생 등 복합 재난상황을 가정해 구급대와 펌프대가 함께 출동하는 다중출동체계(Multi-Tier Dispatch System)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관내 금암·아중·전미·조촌·팔복 119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훈련에 참여한 대원들은 정맥로 확보 및 전문기도유지 보조, 척추손상 예방을 위한 KED·긴척추조정판 적용법, 임시의료소 설치 및 운영 절차 등을 반복 숙달



하며, 현장에서의 팀 CPR과 역할분담 능력을 실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다중출동체계는 하나의 구급대가 아닌

두 개 이상의 출동팀이 동시에 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시스템으로, 심정지 환자의 병원 전 자발

순환(ROSC) 향상과 중증외상자의 초기 처치 성공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방청은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체계를 확대해 오며, 최근에는 심인성 흉통, 응급분만, 다발성 손상 등에도 다중출동이 적용되는 등 구급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이번 분기 훈련을 통해 각 센터별로 팀 단위 출동체계를 점검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임무 분담·현장지휘 절차·의료소 운영체계 등 종합 대응력을 전반적으로 검증했다. 이를 통해 구급과 구조, 진압부서 간 협업 범위를 확장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정소민 기자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안전관리 당부

전주완산소방서, 안전 수칙 준수 홍보 활동 강화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위험성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이동형 보조배터리 등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의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완산소방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전기자, 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지만, 충전 중 과열·충격·습기 노출 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폭발

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는 한 세대의 화재가 전체 건물로 확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 안전 수칙으로는 △KC 인증 받은 정품 배터리·충전기 사용 △습기나 충격, 고온 환경에서의 충전 금지 △수면 중 또는 외출 중 충전 금지 △충전 완료 후 즉시 전원 차단 및 기기 분리 △이상 징후(냄새, 변색, 팽창 등) 발생 시 즉시 사용 중지 및 폐기 등이 있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리튬이온배터리를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전 후 전원을 반드시 분리하고, 배터리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MY전북 세계인 축제’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2025 MY전북 세계인 축제 개최

10월 19일 도청 야외공연장 일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기수, 이하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MY전북 세계인 축제’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던 세계인 축제가 올해로 2회째를 맞아,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도민과 외국인인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화려한 세계 전통의상으로 무대를 가득 채우는 △세계통일 퍼레이드,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음악과 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세계 전통 공연, 세계 현지인의 방을 간접체험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세계인의 방이 준비되어 있으며, 한류의 매력을 세계와 함께 공유하는 △K-MUSIC 경연대회도 열려, 도민과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무대 경험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이다. 부스 운영도 풍성하다. 축제 현장에는 세계 각국의 생활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세계문화체험존, 글로벌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글로벌 푸드존, 그리고 도내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외국인 대상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존이 마련된다. 축제의 열기를 더할 특별한 무대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인기 트로트 가수 노지훈과 퓨전국악밴드 선율모리 등 다양한 가수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행사 방문객 대상 다양한 경품 추첨 이벤트가 진행되어 축제 참여의 재미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 김기수 원장은 “2025 MY전북 세계인 축제는 외국인인과 도민이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완주소방서,아파트 화재 초기진화자에 소화기 전달

“소화기가 가까이 있어다행이었다”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13일 오전 10시 봉동읍 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최근 아파트 화재 발생 당시 신속한 초기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한 관리사무소 직원 이승현(61) 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화기를 전달했다.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34분경, 봉동읍 소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근에 있던 이씨는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가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히 불길을 잡았다. 이씨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완주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지

역사회 안전문화의 귀감이 된다고 판단해, 119안전복지기금을 활용해 마련한 소화기 2대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씨는 “소화기가 가까이 있어서 다행이었다”며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저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 시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설치와 관리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소방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내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SNS와 언론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명곤 기자

중기부, K-뷰티 이끌 유망 중소기업 지원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참여 기업 모집 맞춤형 컨설팅 등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 중기부는 14일부터 ‘2025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는 뷰티 분야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작된 민-관 협업 프로젝트다.

올해는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수출 다변화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상 지역을 미국 외에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3곳으로 확대했다. 해당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모집해 예선-본선-결선 등 단계별 심사를 거쳐 지역별로 3개씩 총 9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단계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글로벌플랫폼사 등과 연계해 해외진출 준비, 플랫폼 입점 교육, 마케팅 전략 고도화를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기업은 지역별 글로벌플랫

폼사 입점과 함께 제품의 브랜딩 강화와 매출 향상을 위한 플랫폼사의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에서는 수출 바우처나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수출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직전년도 수출 실적 500만불 미만의 뷰티 분야(아니뷰티, 뷰티기기 등 포함) 중소기업으로, 시제품 단계 이상의 제품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도 가능하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2023년부터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견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K-뷰티는, 뷰티

제품 자체의 글로벌화를 넘어 우리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우수상품들의 해외 진출 전체를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곧바로 상품화되고 국내외 소비자들과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뷰티 분야 특유의 활력있는 혁신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기업 모집은 오는 10월 28일까지 이뤄지며,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입점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a.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신용보증재단,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

노사공동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신뢰받는 재단 도약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서약식을 개최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에 나섰다.

이날 서약식에는 한종관 이사장과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들이 참석해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재단은 이번 서약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사공동으로 개최된 협약식에 참석한 직원들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부당한 이익 추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비윤리적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결의하며 윤리경영 실천 서약

서에 서명했다.

한종관 이사장은 “윤리경영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이며, 재단의 모든 활동에 있어 근간이 돼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서약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이 일상 업무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해 전북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서약식 이후 윤리경영

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윤리 교육 실시, 보증심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 청렴문화 확산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함으로써 윤리경영이 조직 내 실천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윤리경영 서약식을 계기로 청렴도 향상과 조직 신뢰도 제고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 기업, 용산역 라운지서 수도권 활로 넓힌다

누적 이용객 20만 명 돌파 계약 성사액 125억 달성

서울 용산역에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지’가 호남권 기업들의 수도권 진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도와 함께 운영 중인 용산역 라운지가 2013년 개설 이후 누적 이용객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이용객은 21,247명으로 지난해보다 18.5% 늘었으며, 이 가운데 전북 기업인과 관계자 이용은 5,391명으로 18.8% 증가했다.

이를 통해 전북 기업들이 9월까지 라운

지 회의실에서 성사시킨 계약 규모는 약 125억 원에 이른다.

라운지에는 발표가 가능한 회의실 3곳과 사무·휴게 공간, 업무용 컴퓨터, 복합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광판 설치와 회의실 리모델링을 통해 편의성과 홍보 효과를 높였으며,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협상과 정보 교류를 하는 핵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을 넘어 다양한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편리한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역 4층 라운지는 전북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홈페이지

를 통해 가능하다.

/정소민 기자

김제신협-칠봉회, 지역민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김제신협 프로젝트 위해 100만원 후원금 전달도

김제신협(이사장 백강석)-칠봉회(김제시 봉사단체 회장 고성훈)와 함께 지역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13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 활동에는 김제신협 임직원 7명과 칠봉회 회원 10명이 참여해 노후된 외벽을 새롭게 단장했다.

칠봉회는 2019년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로, ‘페인트칠하는

봉사회’로 알려져 있다.

2020년부터 ‘김제스토리 봉사대’라는 이름으로 매월 1회 이상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김제신협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100만원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제신협은 지난 2023년부터 칠봉회 협력해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백강석 이사장은 “회원들과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며 “김제신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김제신협-칠봉회와 함께 지역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13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진청, 우리 단감 우수 품종 현장 평가회 열어

배연구센터서 신품종 ‘킹스몬’ 등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오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전남 나주)에서 ‘단감 우수 품종 현장 평가회’를 연다.

오늘 선보이는 품종은 새로 개발한 ‘킹스몬’과 한창 보급 중인 ‘감풍’, 유망 계통

‘원교바-28호’ 등이다.

‘킹스몬’은 ‘태추’를 대체하기 위해 2024년 개발한 완전단감 품종이다.

평균 무게는 400g, 당도는 16.5브릭스로 맛과 크기가 우수하다.

특히, 수확 시기가 9월 말~10월 상순이라 늦은 추서에 출하하기에 알맞다.

‘감풍’도 ‘태추’ 대체를 위해 2013년 개발해 2015년부터 보급 중인 품종이다.

평균 무게는 410g, 당도는 15브릭스 정

도이며, 풍부한 과즙에 아삭함과 부드러운 동시에 갖추고 있다.

현재 전문 생산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맺은 창원, 고흥, 영암 지역에 본격 보급되고 있다.

‘원교바-28호’는 10월 상중순 수확되는 조중생 종으로 ‘부유’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 계통이다.

평균 무게 220g, 당도는 17.1브릭스이고, 아삭한 식감에 둥근 사각형 모양이

특색이다.

이번 평가회는 농업인과 소비자, 묘목업체 관계자 등 단감 재배와 유통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 홍성식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단감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관원, 원산지표시 위반 20개소 적발

거짓표시 8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12개소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25 추석을 맞아 선물·제수용품 중심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2일(18일간)까지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선물제수용 제조·판매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에서 위반업체 20개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11개반 28명 등을 투입했다.

특히 점검을 통해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산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농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8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및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2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252만원을 부과했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식별 정보를 확인해 구입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은 지난 10일 전주시 아동복지센터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우리 농산물 180세트를 전달했다.

전북농협, 저소득 가정에 농산물 180세트 나눔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주관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은 지난 10일 전주시 아동복지센터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우리 농산물 180세트를 전달했다.

농산물 세트는 전주관내 아동복지센터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농산물 나눔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통해 이웃들과 따

뜻한 정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박병철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잠시라도 따뜻한 온기를 느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북도민과 농업인을 위한 나눔 활동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는 도시와 농촌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있다.

또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지방은행 최초 ‘월급클럽’ 서비스 오픈

급여고객대상 캐시백 등 서비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방은행 최초 급여고객 전용 멤버십 서비스 ‘월급클럽’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번 서비스는 매월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등급별 혜택과 랜덤 캐시백 보상, 월별 경품 추첨 등을 제공하여, 고객의 급여거래를 즐겁고 지속 가능한 경험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월급클럽’서비스는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고객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별로 보너스 개념의 랜덤캐시백 혜택이 매월 지급되고, 전월 급여를 받은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또 일회성 이벤트나 한정 프로모션과 달리 상시 운영되는 멤버십 형태라는 점에서 기존 급여거래를 넘어 고객의 일상에 재미와 혜택을 더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은행은 이번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월급·축소! 럭키로렛!’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13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전북은



행 모바일 앱 ‘축뱅크’에서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월급클럽’서비스 이용 동의 고객이 대상이며 톨렛을 돌려 캐시백을 지급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월급클럽 서비스는 급여고객 전용 멤버십으로, 고객에게 ‘월급 받는 즐거움’을 새로운 차원에서 제공하고자 기획됐다”며 “고객 일상에서 제공하고자 기획됐다”며 “고객 일상에서 제공하고자 기획됐다”며 “고객 일상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기차 타고 떠나는 정읍 ‘농뚜레일 투어’ 참가자 모집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가을 여행철을 맞아 구절초 꽃축제와 농촌체험을 엮은 기차 여행 상품 ‘농뚜레일 투어’ 참가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투어는 아름다운 민간정원에서의 체험과 만개한 구절초 군락지, 지역 명물인 쌍화차 거리까지 둘러보는 알찬 일정으로 구성됐다. 신청은 코레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농뚜레일 투어’는 산림청이 주관한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이름을 올린 농촌체험농장 ‘들꽃마당’에서 나만의 정원 만들기 테라리움 체험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구절초가 만발한 구절초정원을 찾아 가을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정읍 9경 중 하나인 쌍화차 거리를 둘러보며 지역 고유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도록 짜였다.

‘농뚜레일’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한국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발한 상품이다. 논두렁·뚜레·레일(rail) 등 농촌과 철도가 연상되는 단어를 조합해 ‘농촌과 철도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은 “정읍은 철도로 쉽게 접근 가능한 도시인 만큼, 농촌체험과 관광지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여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18일 초등학교 대상 백제왕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어린이들에게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을 제공한다.

익산시는 백제왕궁박물관에서 오는 18일 세계유산 백제왕궁(왕궁리유적)을 주제로 무료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KB금융그룹과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에 선정돼 마련됐다.

주요 활동으로 ‘백제왕궁 캐키 만들기’ 체험이 진행돼 어린이들이 백제왕궁의 역사와 유적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와 오후 3시 총 2회 운영되며, 참여 대상은 초등 1~6학년으로 회차당 25명씩 총 50명을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KB스타뱅킹(국민지갑) 앱에서 쿠폰을 발급받은 후 체험 당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현장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탐구활동과 체험을 함께 제공해 어린이들이 백제왕궁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흥미롭게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교육을 확대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월명동,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CCTV설치

군산 월명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영호)는 13일, 월명동 일대에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특히 설치된 이동식 CCTV는 특정 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시하다가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로도 옮겨 운영할 수 있어, 고정식 CCTV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월명동은 안내표지판을 함께 설치해 주민들에게 무단투기의 불법성을 알리고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월명동은 군산의 대표적인 근대역사 관광지로, 이번 CCTV 설치를 통해 관광지의 미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월명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절경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호 월명동장은 “이번 CCTV 설치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관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연동지구 재해위험 개선 본격화

2026~2029년까지 분당 6,060㎥ 펌프장 신설 등 배수 불량 문제 해결

익산시가 산북천 유역의 근본적인 침수 피해 해결을 위해 ‘연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익산시는 연동지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50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동제수문의 낮은 높이로 인한 홍수 역류와 배수펌프장 부재로 발생한 배수 불량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분당 6,060㎥ 규모의 대형 배수펌프장을 신설해 배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550억 원 규모로, 재원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비율로 마련된다.

시는 2026년 24억 원을 우선 투입해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익산시가 추진하는



‘산북천 유역 침수방지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2,077억 원을 투입해 연동지구를 비롯한 대조지구, 난포지구, 연동제수문 재설치 등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구조적 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대조지구는 현재 설계 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535억 원을 투입해 제방 보강과 교량 17개소 재가설을 추진한다. 올해 우기철 이전에 선제적으로 임시저류지 조성을 마쳤다.

산북천 개선북구사업은 334억 원 규모로 지난 5월 착공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난포지구는 179억 원 규모의 난포교 재가설사업이 국가하천(금강) 배수영향구간 정비사업에 포함돼 금강유역환경청 설계 단계에 있다. 연동제수문 재설치(478억 원)는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세부설계를 진행 중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홍수 피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연동지구 정비는 주민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산북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한 익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안전관리 점검 적극 행정

구절초꽃축제·내장산 휴양림 방문 현장 점검

이학수 정읍시장이 ‘다시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분주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구절초꽃축제 개막을 앞둔 축제 현장과 내장산자연휴양림 조성지를 잇달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챙기며 세심한 개선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14일 개막하는 구절초꽃축제를 앞두고 구절초지방정원 현장을 방문해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행사장 내 부스 설치 현장·관람동선·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세밀히 살피며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현장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현장 점검은 지난 10일 내장산자연휴양림 조성 현장으로 이어졌다.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한 이 시장은 “휴양림은 시민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안전과 미관이 모두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연휴에도 현장을 직

접 챙겨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의 실천”이라며 “정읍을 찾는 모든 분들이 ‘다시 오고 싶은 도시’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심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반려동물 축제 한마당 펼쳐진다

18~19일 국제 도그쇼 등 반려동물 친화 문화 조성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익산에서 펼쳐진다.

익산시는 오는 18~19일 모현공원 잔디구장에서 ‘2025 익산 반려동물 문화 축제 및 제19회 익산 FCI 국제 도그쇼’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반려동물 친화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이 주관한다. 특히 ‘익산 FCI 국제 도그쇼’와 함께 진행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행사는 18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교육, 캠페인, 체험, 전시·판매 등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달리기 대회와 야마추어 장예물 경주(여질리티), 장기자랑을 비롯해 음악에 맞춰 원반을 던지며 반려견과 호흡하는 ‘독디스크’ 등이

운영된다.

또 도그 스포츠 훈련 시범, 패티켓 강의, 반려동물 문제행동 상담과 건강검진, 유기동물 보호·입양 캠페인 등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 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 19회를 맞은 익산 FCI 국제 도그쇼는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가을 미식여행 진수 ‘군산 짬뽕페스티벌’ 성황

야간 미식공간·마술쇼 0.5인분 판매 등 호응

군산시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백년광장 일원에서 개최했던 ‘2025 군산 짬뽕페스티벌’을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짬뽕의 도시 군산을 대표하는 이번 미식축제는 다채로운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을 미식여행의 진수를 선보였다.

실제로 행사 기간 내내 백년광장은 뜨

거운 열기로 가득했고, 얼큰한 짬뽕의 향기와 맛이 어우러지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올해는 고기짬뽕·해물짬뽕·이색짬뽕 등 다양한 테마형 먹거리 존을 통해 군산 짬뽕의 풍미를 한껏 살렸으며, 특히 이번 축제에서 처음 선보인 짬뽕과 짜장면 0.5인분 판매는 여러 메뉴를 부담 없이 맛볼 수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1인분보다 더 만족스럽다”라는 호평을 받았다.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도 펼쳐졌다. 9일부터 11일 저녁에 열린 ‘프리미엄 짬뽕레스토랑’에서는 감성적인 재즈 공연

이 진행돼 짬뽕 한 그릇에 여유와 낭만을 더했다.

음악과 미식이 어우러진 야간 미식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가족·연인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낮 시간대에는 지역 예술인들의 마술쇼, 서커스 공연이 펼쳐져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시 관계자는 “군산만의 짬뽕 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 미식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SK넥실리스 애로사항 청취

해외이전설 등 현안 논의

가파른 전기요금 인상과 인건비 부담으로 국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정읍시가 지역 핵심 기업인 SK넥실리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학수 시장은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해외 이전설 등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다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1일, 정읍시 북면에 위치한 SK넥실리스 정읍공장을 방문해 류광민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기업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국내 산업계는 급격한 전기요금·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쟁력

저하 위기를 맞았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동박(銅箔) 산업은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국내 생산 기반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K넥실리스 역시 일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고, 이에 이학수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기업의 입장을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기업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기업하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한마음지역자활센터 ‘우수센터’ 선정

군산시는 한마음지역자활센터가 전국 북광역자활센터 주관 2025년 우수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4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된 것은 참여주민과 직원 모두가 함께 일케한 자랑스러운 성과이며, 앞으로도 군산시는 자활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주민들의 자립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시 한마음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참여주민의 자립 성과와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직무·소양 교육의 내실화 △맞춤형 사례관리 △친환경 사업단 △자활기업 연계 등으로 참여주민들의 자활 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강화해왔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네트

워크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우수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된 것은 참여주민과 직원 모두가 함께 일케한 자랑스러운 성과이며, 앞으로도 군산시는 자활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주민들의 자립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도영 센터장 역시 “이번 성과는 참여주민들의 노력과 직원들의 헌신, 그리고 지역사회의 응원이 함께 만들어 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농진원, 청년 농산업 창업 활성화 협약

창업기반 구축 등 협력

익산시가 청년이 머물고 도전하는 농산업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13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과 익산시청에서 ‘익산시 농산업 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산업 분야에서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창업 기반 구축 △우수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정착 지원 △창업 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익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위치한 지역적 강점을 살려, 농산업 분야의 우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전문가와의 연계를 강화해 성장 기반을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은 농산업 분야에서 청년 창업가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머물고 도전하는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소비쿠폰 이벤트 24일까지 연장

정읍시가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SNS 인증 이벤트’ 기간을 오는 24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2차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이벤트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정읍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비쿠폰 사용 매장에서 결제 후 인증샷을 찍고, 개인 SNS(블로그·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톡 등)에 ‘정읍소비쿠폰’ 해시태그와 함께 사용 후기를 올리면 된다. 이후 네이버폼에 게시물 링크

와 정보를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시는 참여자 중 155명을 추첨해 치킨·햄버거·커피 등 인기 기프트콘을 선물로 증정한다. 당첨자는 오는 30일 발표하며, 경품은 11월 5일 발송될 예정이다. 소비쿠폰 자체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SNS 인증 이벤트는 단순한 경품 행사를 넘어,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소비 문화를 만드는 계기”라며 “소비쿠폰 사용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시민 생활에도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부안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 쉼터 조성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총사업비 46억원 투입 지역관광 활성화 기대

부안군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일 반국도 구간에 조성할 스마트 복합쉼 터 5개소 공모사업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청호저수지, 석불산, 청호수마을, 계화간척지 등 주변 자원을 연계해 총면적 9462㎡ 규모로 휴게실, 공중화장실, 주차장, 전기자 충전소 등 복합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46억원(국비 20억원, 군비 26억원)으로 지난 7월 말 국토부 공모를 신청해 최종 공모대상지에 선정됐으며 오는 2027년 전주국도관리사무소와 협약 체결 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편입토지 보상을 거쳐 2028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업지는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 호남고속도로 태인IC와 인접해 있으며 국도 30호선과 국도 4호선을 통해 군산과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도로 흐름상 전략적 요충지로 과거 1965년 섬진강 수몰민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계화도 간척지를 비롯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축조된 청호저수지 인근 지역으로 수리·간척 인프라와 주변 자연 자원을 연계해 단순 휴게 공

간을 넘어 관광자원 허브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 복합쉼터는 익스트림 관광형과 힐링 공간을 겸비한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새만금과의 연계 속에서 물류·교통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논:답 프리미엄 체험’ 운영

장 담그기 현대적 해석 청년 정착·지역 활력도 ↑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된 원덕청년(고창읍 월암마을)에서 ‘논:답 프리미엄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합 체험으로, 장 담그기 문화와 지역 미식, 족보 기록, 정원 힐링을 결합해 청년 정착과 지역 활력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

‘논:답 프리미엄 체험’은 씨간장 만들기, 로컬 미식, 족보 활동지, 정원 산책

등 고창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씨간장 만들기”는 7대째 이어온 웅기장인의 전통 웅기에 명인의 메주와 고창산 고추·소금을 담아 전통 방식 그대로 장을 담그는 체험이다.

‘로컬 미식 체험’은 고창을 대표하는 복분자와 장어 등 제철 재료를 활용한 한 끼 식사와 함께 복분자 하이볼 및 음 페어링을 경험할 수 있다.

‘족보 활동지 체험’은 가족과 개인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 세대를 이어갈 가족만의 유산을 남기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더불어 ‘논:답 정원 산책’은 정원을 거닐며 연인·가족·친구와 함께 추억을 쌓

는 시간을 마련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과 청년은 네이버와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창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주도의 창의적 프로그램과 지역 자원의 현대적 재해석을 결합해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생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마을 만들기 ‘논:답 프리미엄 체험’은 청년의 아이디어와 고창의 고유 자원이 어우러진 고창만의 브랜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미래 발전 핵심 전략과제 발굴

산업·경제·농생명 등 8개 중점 분야 설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3일 ‘지속가능발전 미래 전략과제 발굴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김제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산업·경제, 농생명, 도시성장, SOC·교통, 문화·관광 등 8개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핵심 전략과제 발굴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13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간부공무원 인터뷰, 전문가 워크숍,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신규 국가예산·시책·현안 등을 발굴하고 전문가와 정책간담회를 추진해 발굴된 과제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 상황, 지역 여건 분석을 시작으로 △AI·농업 로봇 테스트 필드 조성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 등과 같은 다양한 미래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의견수렴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희옥 김제부시장은 “최근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경제·사회·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해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청년창업농 유입 확대 ‘청신호’

올해 선정자 35%관외출신 지속가능농촌 만들기 속도

고창군이 청년농업인 유입과 승계농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청년창업농 선정자 중 35%가 관외 지역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창

군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농업전장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향후 청년농 유입 확대의 긍정적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해 군은 최근 각 읍·면 이장단 회의에서 청년창업농 정책 설명회를 열어 고창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을 알렸다.

현재 고창군은 맞춤형 청년농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신규 영농인 대상의 ‘새내기 청년농업인반’ △가업을 승계하는 ‘승계농반’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한 ‘수박·멜론스터디반’이 대표적이다. 오성동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부안군(군수 권익현) 치매안심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주기(2023~2024)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6개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 역량 강화 3개 항목에 대해 현지·서면·데이터 평가를 종합해 이뤄졌으며 센터는 군 단위

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 기관으로 선정돼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센터는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맞춤형 사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쉼터 운영, 치매 안심마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문적인 통합치매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가 보장되는 치매 안심 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3일, 시청 지하대강당에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업담당자 및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156명이 참석했다.

이번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근로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실제 사례를 통해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고 예방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공공일자리사업은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며, “김제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동절기 특별방역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

고창군 축산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 나선다.

최근 AI·ASF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철새 이동과 함께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멧돼지 등을 통한 ASF 확산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가축전염병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 2개소 추가 운영

및 주요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 주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가축전염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 전후인 지난 10월 2일과 10일에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해 축산농장, 관련 시설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했다.

고창군 축산과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은 우리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방역 조치와 축산농가 및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행정부령 및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가축전염병 차단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NH농협 부안군지부, 인구감소위기극복 캠페인 동참

주소갯기 실천운동 등 협력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0일 NH농협 부안군지부(지부장 조상완)와 협약을 체결하고 직원들과 함께 부안사랑 주소갯기 홍보 및 부안사랑 인구감소위기 극복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안사랑 주소갯기 실천운동 적극 동참, 부안사랑 실천 캠페인 참여, 부안사랑인 및 전

북사랑도민 제도 확산, 인구감소 위기극복 공동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상완 부안군지부장은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협은 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생활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람이 돌아오는 부안, 농심이 살 아 숨 쉬는 부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내달 7일까지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 참가자 모집

전북 고창군이 올해의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을 가리는 ‘제38회 전국 어린이판소리 왕중왕대회’ 참가자를 오는 11월 7일까지 모집한다.

차세대 어린이 판소리 명창을 발굴 육성하고 판소리 여섯 바탕 사실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기념하며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 고창군과 KBS전주방송총국이 공동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한다.

대회는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11월8일 예선을 거쳐 이튿날(9일) 축하 공연과 병행해 예선을 통과한 7명의 어린이가 본선 경연을 한다.

왕중왕전은 KBS전주방송총국이 전국에 방영해 어린 꿈나무들의 판소리 기량을 널리 알리며, 미래의 판소리 인재를 발굴하고,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가치의 의미를 둔다.

대회 참가는 2024~2025년 국악대회에 임성한 전국의 어린이로 고창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고, 관련 및 자세한 사항은 (사)동리문화사업회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15일부터 65세 이상 인플루엔자·코로나19 무료 접종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동시 접종을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연령대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플루엔자와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시작 초기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접종 시기를 구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75세 이상은 오는 15일부터 △70세 이상은 20일부터 △65세 이상은 22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김제시 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kdca.go.kr/>) 및 시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아 보건소장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연령대별 접종 일정을 꼭 지켜주길 바라며,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의료돌봄 통합지원회의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 강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돌봄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규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적합성을 판정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신규 대상자 현황 공유 △의료·돌봄 서비스 적합성 검토 △하반기 김제형 특화사업과 연계한 지원 방안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발굴하고,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판정하는 과정은 지역 통합돌봄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군 ‘근로자 천원 아침밥’ 국비 확대

산단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 전북 최초 완주군 자체 추진 이어 농식품부 파일럿 사업 선정

완주군(군수 유희태)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산업단지 근로자 천 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지난해 11월 전북 최초로 ‘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자체 추진하며 지역 근로자의 큰 호응을 얻어 왔다. 군은 이번 정부 공모 선정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기존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근로자 복지 향상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새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된 정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가 내년 시범사업을 앞두고 올해 두 달간 시범 운영하는 파일럿 사업이다. 전국 16곳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완주군은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들이 이번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군은 현재 산단 내 근로자종합복지관(완주산업단지사무소) 1층에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김밥·샌드위치·샐러드 등 간편식을 1,000~2,000원에 판매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사업 선정으로 10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 품목을 1,000원으로 통일해 제공하며, 쌀 소비 촉진 취지에 맞춰 ‘김밥’ 메뉴도 새롭게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북 최초로 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완주군이 공모선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근로자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누리시민’ 운영 1년 만 가입자 15만명 돌파

남원시 생활인구 확대 주력 추석 연휴기간 7,125명 확보

남원시가 생활인구 등록제도인 ‘남원누리시민제도’ 운영 1년 만에 남원누리시민 가입자가 15만명을 돌파했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광한루원과 피오리움 등 관광지를 방문한 관외자 7,125명이 남원누리시민으로 등록해 9일 기준 남원누리시민 가입자가 151,476명으로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인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 9월부터 남원누리시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남원누리시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광한루원, 피오리움 등 8개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과 맛집·카페·숙박 등 83개 가맹점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



남원시 생활인구 등록제도인 ‘남원누리시민’이 15만명을 넘어섰다. <사진=남원시>

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는 국제드론제전, 흥부제, 국가유산야행 등 가을 3대 축제와 연계 남원누리시민대상 스탬프 투어를 추진해, 완주자 및 숙박객에게 농산품 할인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정부합동평가 우수성적 달성 ‘총력 행보’

13일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미달성 보완·협업 대책 심도 논의

순창군은 13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 주재로 9월말 기준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군수를 비롯한 전 부서장이 참석해, 9월말 기준 정량지표 실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부진지표와 미달성이 예상되는 지표의 원인 및 보완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와 주요 국정 및 도정 역점시책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순창군은 올해 정량지표 64개, 정성지표 8개 등 총 72개 지표를 대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북 도내 다른 시군과의 경쟁을 진행 중이다. 군은 올해 정량지표 달성목표를



순창군은 13일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순창군>

95.3%(64개 지표 중 61개 달성)로 설정했으며, 자체 월별 로드맵에 따라 점진적으로 달성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9월말과 비교할 때, 4.36% 포인트 이상 향상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과 동일지표 중 목표를 조기 달성하거나 실적이 상승된 항목이 17개에 달하는 등 성과향상이 두드러지

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이번 보고회에서는 미달성 지표에 대한 부서간 협업전략을 강화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축제업무를 비롯한 하반기 현안업무로 인해 전 직원 이 바쁜 시기이지만, 연말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올해 반드시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대표 야간축제 ‘월광포차’ 시월 밤 밝힌다

공연·먹거리·참여 프로그램 결합 체류형 야간관광 브랜드로 성장

남원시는 하반기 ‘월광포차’를 오는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광한루원 경외사가 일원에서 운영한다. 행사는 ‘지역예술인 공연’, ‘시민참여형 프로그램(행운의 95 노래방)’, ‘감성 먹거리존’이 결합된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로 꾸며진다. 2025년 상반기 월광포차는 춘향제 기간(4. 30. ~ 5. 6.)과 이후 5월 ~ 6월 주말 운영(5. 17. ~ 6. 14.)을 통해 약 23만 4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춘향제 기간에는 약 17만 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으며, 지역예술인 67팀이 음악·국악·무용 등 다양한 공연으

로 참여했다. 이어진 주말 운영 기간에는 임창정, 정동하 등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약 6만 5천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방문객 95%가 재방문의사를 밝혔으며, 53%가 전북 외 지역 방문객으로 확인돼 남원 야간관광 프로그램의 확장 가능성과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입증했다. 2025년 하반기 월광포차는 ‘달빛 아래 감성 포차거리’를 주제로, 음악과 먹거리, 그리고 방문객 참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운영된다. 행사는 남원 지역예술인과 문화예술동호회, 그리고 초청가수가 함께하는 명품 스테이지로 꾸며지며,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인 ‘행운의 95 노래방’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무대 형식으로 진행되고, 참가비는 장학금 등 지역사회 환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남원 대표 먹거리와 포차형 부스를 결합한 ‘감성 먹거리존 & 포차거리’가 운영되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에는 박혜정·더원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지역 문화예술동호회가 참여해 시민이 함께 즐기는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공연·음식·체험이 결합된 남원만의 감성축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소양면 경로당, 대구 ‘온누리 열효율’ 선정

3개소 선정 난방 효율 개선 어르신 ‘에너지 복지’ 확대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년 온(溫)누리 열효율 개선사업’에 완주군 소양면 경로당 3개소(문화·약암·토정경로당)가 선정돼 따뜻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복지 확대를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선정된 경로당은 창호 및 출입문 교체 공사를 통해 난방 효율을 크게 높였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겨울철에도 한층 따뜻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은 지난 4월 신청을 시작으로, 5월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7월 최종 선정이 확정됐으며,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올해 완주군에서는 총 5개 경로당이 선정됐다. 배귀순 소양면장은 “이번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한층 더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읍면 순회 노인일자리 간담회 ‘소통 강화’

3,350명 대상 총 17회 진행 “어르신 역량 활용 일자리 창출”

순창군이 13일 적성면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실시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달 28일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3,350명을 대상으로 순창시니어클럽(관장 이호이) 주관해 읍·면 및 사업별로 총 17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최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 방향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최영일 군수는 “시니어 자원순환단, 시니어 정리수납 지원 등 어르신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시니어 교육을 통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순창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2025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서는 선도모델 부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무인 자동급이로 축산현장 ‘스마트 전환’

(주)뉴텍 시공 연내 2개소 설치 ICT기술 자동 사료 혼합·공급

완주군이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축산분야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인 자동급이 시스템 시범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총 2개소 중 1개소의 설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개소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과 생산성·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료 혼합부터 급이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우방별 정밀급이(개체별 사양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축산 현장은 인력 의존도가 높고 급이량·시간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가축의 생육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무인 자동급이 시스템은 농가가 설정한 시간, 급이량, 급이 횟수에 따라 ICT 기술로 자동 사료 혼합·공급이 이뤄져 개체별 맞춤형 영양 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농가는 △반복적 급이작업 감소로 인한 노동력 절감 △사료비 절감 △생산성 향상과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급이 이력과 사육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우의 체중·등급 등 사육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주)뉴텍(공동대표 김명호, 유영우)이 시공을 맡아 ICT 기반 자동화 기술을 현장에 적용했으며, 완주군은 시범 운영결과를 분석해 스마트 축산 기술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보건소는 ‘2025 남원드론제전 with 로봇’ 행사에서 참여해 시민과 관광객 대상 다채로운 생활 속 건강 지키기 체험을 제공한다. <사진=남원시>

남원시보건소, 드론제전서 건강체험관 운영

남원시보건소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5 남원드론제전 with 로봇’ 행사에 참여해 건강체험관을 운영한다. 이번 건강체험관은 첨단과학과 시민건강의 만남으로 드론·로봇 등 첨단기술 축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쉽고 즐겁게 건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소 내 각 팀이 참여해 주제에 맞는 다채로운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배우는 체험(퍼즐, 다트, 뷰박스)

△스트레스 검사 △심뇌혈관질환 날 말 퀴즈 △급원 다짐 폴라로이드 촬영 △치매인식 개선 OX 퀴즈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관리 방법을 체험으로 배우며 일상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재 남원보건소장은 “첨단 과학 기술을 주제로 하는 축제와 함께 건강체험관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대형농기계 구입 지원 농가 부담 덜어 ‘호평’

순창군이 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2023년부터 추진해 온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50억 원을 투입해 콤팩트, 트랙터, 이앙기 등 245대의 대형 농기계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인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대형농기계가 대농 위주로만 지원된다”는 일부 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별로 트랙터 1대를 소규모 농가(5ha 미만)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농 농가들로부터 “일손 부담이 크게 줄었고, 농작업 시기에도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순창군은 단순히 농기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년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해 농기계의 관리 상태와 활용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우리 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가을철 수확기 이후 농업생산기반시설 연내 정비

남원시가 올해 가을철 수확기 이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신속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본예산 외 추가경정예산 40억원을 반영해 취약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연내 정비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 현장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 내구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간에 대해서 가을 태풍이 오기전까지 신속하게 보수·보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농업인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시설의 내구성과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농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완주 고산농협 조합장배 파크골프 대회 성료

완주 고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손병철)은 지난 10일 「비봉파크골프장」에서 ‘제8회 고산농협조합장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미영 비봉면장, 김대호 농업중앙회 완주군지부장, 고산농협 임직원 등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고산·비봉면 60여 명의 조합원 등이 참가해 그 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활기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 햇볕이 내리쬐는 화창한 날씨와 맑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으로 대회 내내 선수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만개했다. 고산농협 손병철조합장은 “이번 대회가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여가문화 확산,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사에 대한 걱정을 덜고 화합의 장이 되는 시간을 자주 가져 앞으로도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재부산 임실군 향우회, 임실군에 200만원 기탁

고향을 사랑하는 향우회원들이 매년 임실N 치즈축제를 찾아 고향의 발전상을 함께 나누고, 지역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재부산 임실군 향우회의 뜻깊은 나눔이 11년째 지속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임실N 치즈축제 기간인 지난 8일 재부산 임실군 향우회(회장 장인수)가 2백만원의 장학금을 (재)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 민)에 전달했다.

재부산 임실군 향우회는 부산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임실 출신 향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향 발전과 향우 간 유대 강화에 꾸준히 힘써오고 있다.

장인수 회장은 “고향 임실이 치즈축제를 통해 더욱 활기찬 지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작지만 후배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고, 향우회원님들과 뜻을 모아 꾸준히 기부할 수 있어 보람차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대한적십자사 전북도지사, 마을버스 '바로온'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전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연상)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바로온' 소속 운전원 및 직원들이 모은 90만원의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회비는 마을버스운영본부 소속 운전원과 직원들이 간식비 등을 아껴 십사일반 모은 금액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명절마다 꾸준히 적십자 특별회비를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박동선 전주시설관리공단 마을버스복지부장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회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완주어린이취타대, 세종 한글 축제 물들이다

전통과 미래 아름다운 조화

전통 국악의 맥을 잇는 완주어린이취타대가 지난 11일 한글을 기념하는 '세종 한글 축제'에 초청되어 화려하고도 성공적인 퍼레이드와 공연을 선보였다.

어린 단원들의 절도 있고 활기찬 연주는 세종시를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올해부터 '세종 한글 축제'로 명칭을 변경하며 더욱 다채로운 면모를 갖춘 이번 축제는 매년 한글날을 기념하는 세종시의 대표 행

사이다.

한글날 공식 지정 8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한 축제 현장에서, 완주어린이취타대는 세종시의 마스코트 '충녕이'와 함께 퍼레이드를 펼치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특히, 매화공연장에서 펼쳐진 이들의 본 공연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전통 복식과 절도 있는 움직임, 그리고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취타대의 선율은 전통문화의 위용을 오롯이 전달하며 깊은 울림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완주=김명곤 기자



익산불교신도연합회, 저소득층에 연탄 1만 800장 전달

제18회 자비의 연탄나누기 54가정에 200개 씩 전달

익산시는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이후범)'가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연탄 1만 800장(8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연탄은 지난 12일 진행된 '제18회 자비의 연탄나누기' 행사로 마련됐다. 연탄은 54가정에 가구당 200개 씩 전달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연합회 이후

범 회장을 비롯한 회원 60여 명은 단순한 기탁을 넘어 연탄 나르기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팔봉동 일대 4가구를 직접 방문해 연탄을 나르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후범 회장은 “신도들과 함께 직접 연탄을 나르며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재전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 400만원 기탁

진안군의 출향인들이 해마다 고향 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며 고향 발전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제63회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재전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회장 최중상)가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식을 진행했다.

재전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는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고 있으며 올해도 총 400만원을 기탁했다. 또

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부금의 30%인 12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고 재기부하며 고향 사랑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최중상 회장은 “향우회원 모두가 고향 진안을 향한 애정을 마음에 품고 매년 한뜻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진안군의 발전과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주)모터뱅크 등 부안군에 장학금 기탁 이어져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최근 열린 제5회 부안읍민의 날 읍민대동한마당 행사에서 (주)모터뱅크(회장 이진수)와 부안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홍)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모터뱅크 이진수 회장은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으로서 부안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을 돕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도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한홍 부안읍 주민자치위원장은 “마음을 모아 마련한 장학금이 부안의 인재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기탁된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군복무 중인 이은기씨, 부안군에 장학금 120만원 기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최근 군복무 중인 이은기(22)씨가 장학금 120만원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기씨는 현재 경기지역 최전방 G.O.P에서 장교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본인의 월급 중 10만원을 모아 1년이 되는 날 재단에 장학금 120만원을 기탁했다.

이은기씨는 “작지만 실천하는 노력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안의 인재 육성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케이워터기술 용담댐사업소, 완주군에 150만원 기탁

케이워터기술(K-water Tech) 용담댐사업소(소장 양순필)가 완주군에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

최근 군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양순필 소장을 비롯해 정민수 팀장, 이라련 과장이 함께했으며, 이번 후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케이워터기술 용담댐사업소는 꾸준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회공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검사와 비상구 유도등 및 LED 조명 교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전문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큰 효능을 얻기도 했다.

양순필 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은 공기업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살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일상 속 환경 보호 실천



1. 분리배출은 꼼꼼하게!



2.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 텀블러를 활용하자!



4.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 뽑기!

5. 이면지는 모아서 여러 용도로!

♣연습장, 메모장으로 쓰고, 프린터도 하고

〈一事一言〉



주요국들 정부 부채에 떨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2)

홍종학

전 중소벤처부 장관

더 큰 문제는 이들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재정 적자 비율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 재정 적자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이 GDP 대비 5%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다. 앞서 정부 부채가 높다고 언급된 나라들이 재정 적자 또한 높으니, 정부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일본은 이미 부채가 너무 높아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막대한 정부 부채와 지속적인 재정 적자는 정부의 경제 정책 재량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우선,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방, 사회보장 등 필수 재정을 늘리기가 어려워진다.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 지출 대비 이자 비용이 세금으로 걷은 돈의 8% 이상에 달하기도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정부는 재정정책을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 한 팔이 묶인 운동선수과 같은 처지가 된다.

여기에 더해 금융정책이라는 다른 한 팔마저 묶여 정부는 이자율을 마음대로 낮추지 못한다. 정부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팔기 위해서는 높은 이자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뿐만 아니라, 막대한 미국 채권을 사줄 투자자가 없을 경우 금융 시장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 채권을 서서히 팔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운다.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모두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며, 영국 10년물 국제 금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양팔이 모두 묶인 선진국 경제 정책 당국은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극우 세력의 등장과 정정 불안으로 이어진다. 경제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지 못하니 정치권은 자꾸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요국들의 정부 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위기를 넘어 세계 금융시장의 '발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 국가에서 문제가 터지면 다른 국가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2010년 남유럽 위기 당시 그리스 사태가 주변국으로 확산된 사례에서 이미 목격했다. 현재의 정부 부채 수준은 2차 세계대전 직후를 제외하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으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들의 부채 문제가 터지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높아져 주식, 채권 등 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국제 통화 및 환율도 급변동하며 통화 전쟁이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우려가 커진다. 이 경우 글

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취약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신흥국들은 기적처럼 버티고 있는 곳이 많지만, 경제 불안은 정치 불안정으로 이어져 태국 총리 사퇴, 인도네시아 의회 방화 등의 사태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이제 한국 경제의 상황을 살펴보자.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부채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대단히 안정적인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이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럼에도 우리 언론과 정책 당국은 끊임없이 정부 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엉뚱한 진단을 고집하는 것이 다시 IMF 사태 전야를 보는 듯하다.

진정한 위기의 뇌관은 정부 부채가 아닌 가계 부채에 있다. OECD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은 180%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계 부채 문제는 한국이 가장 취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정으로 국민 소득을 보전한 반면, 한국은 재정 지출 대신 대출을 늘려 가계 부채가 급격히 악화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가계가 이미

대규모로 부실화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어제까지 멀쩡히 장사하던 가게들이 갑자기 문을 닫고, 장사가 잘되던 곳조차 높은 임대료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이 주요국들의 정부 부채 문제로 인해 충격을 받을 때, 한국 경제는 안정적인 정부 부채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가계 부채라는 아킬레스건에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2008년 미국 경제 위기 역시 가계 부실화에서 시작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언론과 정책 당국은 여전히 정부 부채 문제라는 타령만 하고 있을 뿐, 정작 시급하고 위험한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등한시하고 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할 때 충격은 커진다. 지금이라도 가계 부채 연착륙을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둘러싼 전북 정치권과 남원시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선언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와 직결된다는 점을 방증한다. 특히 남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 따라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지역 생존과 국가적 책무를 동시에 실현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지금 전북의 현실은 엄중하다.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남원시 역시 8만명 선이 무너진 지 오래다.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한다면 전북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런 상황에서 남원에 경찰학교가 들어선다면 연간 5천명에 달하는 신입 경찰 교육생이 찾아오고, 300억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0여명의 상주 인력 유입이 기대된다.

남원 후보지는 입지 조건에서도 경쟁력이 확실하다. 구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100% 국공유지로,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아 건축재정 기초와도 부합한다. 광주~대구,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KTX-SRT 등 철도망이 이미 연결돼 있고, 2030년 개통 예정인 달빛철도까지 완공되면 전국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남원 유치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지금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은 정부 부처와 대기업, 공공기관이 집중 배치돼 각종 개발 혜택을 누려왔다. 반면 전북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지역발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국가가 균형발전을 지향한다

면, 이제는 남원과 같은 낙후 지역에 전략적 투자를 해야 한다. 경찰학교 유치는 그 첫걸음이자, 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번 사업 추진은 국가 차원의 명분도 지닌다. 지방소멸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직결된 과제다. 농산어촌이 붕괴하면 식량안보와 문화적 다양성마저 위협받는다. 따라서 남원에 경찰학교를 설립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선택이다.

경찰청은 비용·편익 분석 용역과 부지 선정 절차를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끝내야 한다. 특히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타조사, 기본·실시설계, 착공 등 남은 절차 역시 정치적 변수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공언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전북 정치권과 남원시는 지금까지 긴밀한 연대를 유지해야 한다. 여야가 손을 맞잡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통해 남원 유치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과 경찰 조직 내부의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켜 '남원=경찰 교육의 메카'라는 사회적 인식을 굳혀야 한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지방소멸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남원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야 한다.



오늘의시

시월 / 나희덕

산에 와 생각합니다
바위가 山門을 여는 여기
언젠가 당신이 왔던건 아닐까 하고,
머투 한 가지 꺾여
물 위로 무심히 띄워보내며
붉게 물드는 계곡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고,
있을 깨치고 내려오는 저 햇살
당신 어깨에도 내렸으리라고,
산기슭에 걸터앉아 피웠을 담배연기
저 떠도는 구름이 되었으리라고,
새삼 골짜기에 싸여 생각하는 것은
내가 벗하여 살 이름
머투나 다래, 물든 잎사귀와 물,
山門을 열고 제 몸을 여는 바위,
도토리, 청설모, 쑥부쟁이 뿐이어서
당신 이름 뿐이어서
단풍 곁에서 있다가 나도 따라 붉어져
물 위로 흘러내리면
나 여기 다년간종 당신을 아실까
있과 있처럼 흐르다 만나질 수 있을까
이승이 아니라도 그럴 수는 있을까

시인 약력 : 1966년 충남 논산 출생.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김수영문학상과 미당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독자광장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기원하며



전주시가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지 어느새 반년이 훌쩍 넘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쟁도시인 서울의 벽을 넘어서서 대표주자로 뛰게 되면서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고려 초 (성종 14년) 전라도라는 명칭이 사용된 이래 천년만에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카타르,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독일 등 10여개 국가들이 유치 활동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아직도 최종개최지 선정방식과 개최지 결정시기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IOC총회에서 IOC 전제위원들의 투표로 대회개최 7

년전에 개최지를 결정해왔으나 2020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IOC 내부에 미래유치위원회(Future Host commission)를 설치하고 우선협상도시(Preferred Host) 선정이라는 개최지 결정방식으로 변경하였고 그 실제사례가 2030년 프랑스 동계올림픽, 2032년 호주 브리스번 하계올림픽, 2034년 미국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었다.

개최지 결정이 7년전에서 11년 전으로 바뀌게 되었으나 금년 6월 23일 취임한 새로운 IOC위원장(커스티 코벤펀트리 42세 짐바브웨 출신 여성) 등장으로 그 시기가 조금 늦춰지고 있다

이러한 결정방식은 우리에게도 유치 성공이라는 가능성을 갖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개최지 선정방식에 있어서 과거에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IOC위원들 로비와 비윤리적인 접촉시도를 벗어나 후보도시가 올림픽을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이어서 IOC위원들을 대상

으로 로비할 필요가 줄어들게되는 새로운 방식에 환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도 또다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유치위원회가 두 개 도시 이상 복수의 후보도시(Continuous Dialogue 단계)들을 집행위원회에 추천하고 집행위원회에서는 복수의 우선협상도시(Targeted Dialogue 단계)들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재정·법적·인프라를 검토하고 기술 정책협의를 하며 현장실사들이 이뤄지고 이를 다시 IOC총회에 추천하고 총회에서 IOC위원들의 최종 투표로 개최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식은 절차가 더 까다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IOC위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하는 부담감이 있다.

IOC의 개최지 결정시기는 2027년 2월로 예상되지만 IOC발표전에는 그 누구도 확답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확실한 것은 IOC가 개최지 선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나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 있다는

우려다.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서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는데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수없이 쌓여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중 전북에서 하계올림픽을 유치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반년이 지나도록 중앙 정부부처인 문제부는 아직도 국제대회 유치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마치 전북의 지방행사처럼 준비하는 모습이 답답하기만 하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추진단을 도청 공무원 위주로만 구성해서 도청안에 사무실을 둘것이 아니라 중앙 관련부처에서 파견받고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반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으며 이번 올림픽 유치의 기회 또한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북마이스산업연구소
문종선 대표

향산사 소장불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시대 - 조선시대

- 지정일 - 2005년 6월 3일

- 소재지 - 무주군 무주읍 향안로 27-7 (읍내리)





남원시, 10월 '문화의 달' 맞아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로 풍성!

10월 16일~19일 2025 남원 국가유산 야행
 10월 18일 제25회 흥부골 남원농악경연대회 등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문화의 달'인 10월을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선보인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국가유산 야행', '농악경연대회', '국제도예캠프', '현대무용공연' 등이 꼽히며, 이 외에도 전통예술·생활문화·소공연 등 소규모 문화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2025 남원 국가유산 야행'은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광한루원과 월궁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월궁에 입사한 달토

끼'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야행은 낙화놀이, 풍등날리기 등 8개 분야, 3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야간경관 조명과 함께 전통공연, 체험행사 등이 어우러지며, 광한루의 역사와 설화를 기반으로 한 몰입형 야간 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이 기대된다.

남원의 대표 민속문화인 농악을 중심으로 한 대회도 잇따라 개최된다. 10월 18일 요천면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제25회 흥부골 남원농악경연대회'는 읍면

동 대항으로 펼쳐지며, 지역 고유의 농악을 계승하고 각 읍면동의 기량을 뽐내는 장으로 활용된다. 이어 10월 1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1회 남원풍류 전국 농악경연대회'가 개최돼 전국 각지의 농악 명인들이 개인놀이를 중심으로 기량을 겨룬다. 개인이 보유한 기량과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개인놀이의 등용문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제14회 남원국제도예캠프'가 열린다. (사)남원국제도예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캠프는 국내외 도예 작가들의 기획초대전, 워크숍,

학술세미나, 물레경진대회 등을 통해 도자예술의 다양한 면모를 선보인다. 특히, 전통 도예 기술과 현대적 미감이 결합된 작품 전시와 체험이 마련돼 도예 대중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현대무용의 감각적인 무대도 마련된다. 10월 25일, 10월 26일 서도역 영상촬영장에서 펼쳐지는 '다시 간이역에서'는 김화숙과 현대무용단 '사포'가 선보이는 무용공연이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장소인 서도역에서 모티브를 얻어 과거의 번영과 현재의 삶을 연결하며 각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위로를 전달하는 공연으로, 지난 5월에도 이미 수준 높은 공연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생활문화 행사들이 남원 곳곳에서 열린다. 10월 3일 남원역에서는 시립청소년합창단의 버스킹 공연이 귀성객을 맞이할 예정이며, 10월 26일 사랑의광장에서는 남원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우리 동네 어울림 음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매주 금요일 광한루원 완월정에서는 시립국악단의 '전통소리청' 상설 공연이 열려 지역민에게 정통 국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고, 조감녀살풀이명무관에서는 '가을공연 춤벗'이 마련돼 민살풀이춤과 부채춤 등 전통 춤사위를 선보인다.

한편, 전통공예와 관련된 워크숍 및 전시행사도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랑의광장에서는 '제12회 질품공예 전시회'가 열리고, 10월 25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옷칠, 갈이, 목공카빙 등 총 100여명이 참여하는 '남원 옷칠 목공예 워크숍'도 마련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10월 여러 행사들을 통해 문화가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시민 누구나 쉽게 전통과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도시 남원으로 나아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JBT
 전북 타임스신문

Jeonbuk Times

YOUR WINDOW TO THE WORLD, OUR FOCUS ON JEONBUK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구독신청 282-9600